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

이원재

전 LAB2050 대표

2016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몽골기병과 같았다. 보이지 않는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모두의 주목을 받는 중원으로 질주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현존하는 국가에서 거의 채택한 적이 없는 정책이지만, 수많은 금기를 깨고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거부감은 크던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으로까지 올라섰다. 숨가쁜 시간이었다.

기본소득의 진격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알파고, 둘째는 코로나19, 셋째는 정치인 이재명이었다.

알파고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한 중요한 초기 사건이었다. 2016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세돌 기사를 꺾은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관심은 노동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모두 없앨 것이라는 공포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조차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면, 그저 그런 노동자인 보통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였다. 일자리는 곧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전 사회를 감쌌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조건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일자리 없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당위론이 힘을 얻었다

코로나19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 국민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됐다.

경험은 힘이 세다. 이전까지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는 공감하지 만,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차례 시행되는 정 책을 보면서, 의지만 있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 다. 기본소득은 코로나와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소프트랜딩하게 된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제를 옹호하고 실험하며 자신의 이름과 이 정책을 같이 알렸다. 그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후보까지 올라서면서, 기본소득제의 체급도 그만큼 올라섰 다. 자동화와 일자리 전환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대선이나, 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구축한 프랑 스 대선에서조차 기본소득제는 군소후보의 공약이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기본소득이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선진국은 찾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제는 당위론과 경험을 넘어 정치적 힘까지 얻게 되었다.

당연히 이런 성과는 기본소득 운동이 오랜 기간 힘을 쏟은 결과다. 그리고 중원 점령을 목표지점 삼아 진격했던 전략의 성과이기도 하다. 모든 전력은 기본소득의 중원 점령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정 점은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였다.

군사전략이론에 ‘전격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독일어로 블리츠크리그Blitzkrieg라고 불리기도 한 다. 한 마디로 기동전이다. 전차와 경보병부대를 앞세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것 을 최우선 전술로 삼는 전략이다. 작은 전력으로도 빠른 시간 내 승리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각광받았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잘 활용해서, 불과 몇 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만든 전략이기 도 하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쩌면 전격전과 같았다. 가장 빠른 제도화를 목표로 삼았다. 처음 부터 완성된 제도를 들고 옹호하며 활동했다. 전문가들의 실험이나 시민들의 숙의보다는 정치적 힘을 획득하고 정책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전격전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빠르게 진격했는데, 생각보다 적의 중심이 강고해 서 함락시킬 수 없을 때다.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한 채 기동력만 앞세워 깊게 침투했다가 적의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 병력은 금세 보급이 떨어져 지치고 주변의 적들에게 포위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어쩌면 2022년 5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어쩌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전격전이 맞 닥뜨린 숙명이다. 이 전략은 이제 위기를 맞았다. 적의 후방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방어력이 강해서 점령에 실패하고 만 셈이다. 이전까지의 성공은 눈부셨지만, 이제 그 성공이 짐이 되 는 상황이 됐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 환경의 변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시간, 우리는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케인지언들의 목소

리가 점점 더 강력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

풍요의 시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자유무역과 투자의 시대였다. 국경을 넘나들며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다. 공급과잉이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가져오기도 했다. 값싼 물건이 점점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자들을 찾아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금리는 사실상 제로인 채로 십수 년이 지나갔다.

역설적으로 이 때 케인즈주의의 목소리가 커진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수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을 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어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므로, 일자리 없는 시대에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결핍의 시대가 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전통적 자유무역주의는 힘을 잃고 있다. 공급망은 삐걱거리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전세계는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이제 문제는 물건을 살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케인즈주의나 기본소득제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전격전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공급부족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전격전 전략을 잠시 접어 두고, 인내심을 갖고 진지전을 구상할 시기다.

진지전이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군을 천천히 늘려가며 다수파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에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완성된 제도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옹호하며 다양하게 변형된 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도 논의를 넓히며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진지를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이라는 진지다.

기본소득제는 지난 5년여 동안은 엑셀파일로 표현되는 제도였다. 소요 재정과 이에 따른 합리적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다양한 계산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선캠프 등에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현장이 없어 늘 탁상공론처럼 여겨진다는 점은 기본소득 운동의 치명적 결함이다. 모든 비영리 옹호활동은 시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먹고 자란다. 그런 관심과 에너지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연구과정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실험은 매우 정교한 정량적 조사를 통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 진행 중 연구팀은 마을로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농촌기본소득 수령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는 훨씬 풍성해졌다. 예컨대 지급 방식이나 지

급 대상과 기준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소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환경문제나 의료서비스 문제, 또한 지역 인플레이션 양상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지역으로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는 ‘실험’이라는 진지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실험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농촌기본소득이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처럼 참여소득형 기본소득 실험도 유연하게 늘려갈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실험설계를 하고, 이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급부족 시대에는, 조건없는 기본소득보다는 ‘활동하면 지급하는’ 참여소득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집안에서 이뤄지는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수당의 경우도, 일종의 참여소득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수도권외 지방소멸 위험지역 대응을 만들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

두 가지 진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제 구체적 제도보다는 기본소득이 옹호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발언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다만 도구 그 자체를 옹호하느라 그 취지를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의 시대, 불평등 확대의 시대, 그리고 무급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 기본소득이 건드려야 할 것은 가치와 비전이다.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 정책실험,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은 실험과 대화로 시작되어야 한다.